

# 북스

Books

## 세상을 움직이는 병에 걸린 사람들

### “약간의 광기를 지닌 ‘경조증’ 환자들이 미국을 키웠다”

#### 조증

존 가트너 지음·조자현 옮김

역사는 광기(狂氣)와 우연의 소산이라고 한다. 남들 눈에 무모하기만 한 열정과 비이성적 자신감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인물들이 역사를 바꾼 사례들이 많기 때문이다.

존 가트너 교수(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저서 ‘조증(躁症)’에서 정신병자는 아니지만 약간의 광기를 지닌 경조증(輕躁症) 환자, 즉 하이포마니아(hypomania)들이 신대륙 미국을 키웠다고 주장한다. 이민자의 자손인 미국인들의 유전자에 실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멈출 줄 모르는 열의가 새겨져 있다는 것이다.

하이포마니아들은 정상과 비정상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생각과 말, 행동, 의사결정이 빠르다. 지나칠 정도로 거대한 야망을 좇고 거기에 자신의 에너지를 ‘올인’한다. 자신이 아주 뛰어나고 특별하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느낀다. 카리스마가 넘치고 설득력이 뛰어나다. 주위에 적을 만드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비전이나 사명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편집증적인 반응을 보인다. 충동에 잘 사로잡히고 잠자는 것도 잊고 일에 몰두하는 일 중독자들이 많다.

저자는 미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이끈 위인들에게서 하이포마니아의 이런 특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에서 금광을 찾아



콜럼버스



에디슨



카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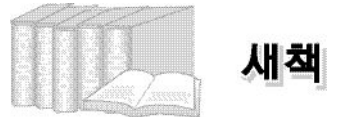
에루살렘 탈환에 이용하라는 신의 계시를 받았다”며 이사벨라 여왕을 설득하고 마침내 항해에 나선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믿는 ‘과대망상’이 콜럼버스를 신대륙으로 이끈 것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으로 헌법제정에 공헌한 초대 재무부 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출세 기회를 잡기 위해 전쟁이 터지기만 기다린 하이포마니아였고,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는 세계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이 자신의 소임이라고 생각했던 이상주의자였다. 인간 계보 지도를 최초로 완성한 크레이그 벤터도 ‘미치광이’ ‘과학계의 이단아’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에게 조증 기질이 없었다면 유전학의 새 지평을 열 수 없었을 것이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제작한 데이비드 셀즈닉과 영화사 MGM을 설립한 마이어 가문도 거만해보일 정도로 지나친 자신감, 과감한 아이디어, 지나친 낙관주의, 이상주의 등 평범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조증을 감추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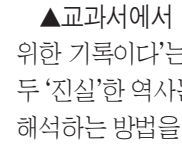
그렇다면, 조증은 항상 성공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열망일까? 현란하다 못해 무모하기까지 한 투자기법으로 대공황 이후 최대의 금융위기를 몰고온 월가의 투자자들 또한 하이포마니아가 아닐까?

저자는 조증이 주변을 불행으로 몰아 넣을 수도 있는 ‘양날의 칼’임은 인정하면서도, 인류사회의 진보를 이끄는 존재라는데 방점을 찍는다. 하이포마니아는 ‘세상을 움직이는 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주장이다.

이 책은 ‘하이포마니아’라는 색안경을 통해 본 미국사이기도 하다. 미국인들이 어떻게 신대륙을 건설했는지, 부를 어떤 방식으로 축적하고, 미국 고유의 실용주의적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켰는지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신바람’ 문화가 있기에 하이포마니아가 미국인만의 유전자라는 저자의 주장에는 언뜻 수긍이 안 간다. <살림 Biz·1만7천원> /김주정 기자 jnews@kwangju.co.kr



▲동아시아의 침략사를 바로 잡아주는 위풍당당 한국사=상고시대 치우천황의 전설, 단군 조선의 대외정벌사, 고구려와 신라의 왜(倭)정벌, 고려의 대마도 정벌, 세종의 북벌 등 우리 민족의 정사와 야사를 넘나들며 우리 민족의 대외 군사유전 기록을 담았다. <베이지북스·1만5천원>



▲교과서에서 못 가르쳐 주는 발칙한 세계사=역사는 승리자를 위한 기록이다’는 말을 뒤집는 역사서. 역사책에 기술된 ‘사실’이 모두 ‘진실’한 역사는 아니었다는 것을 집필자의 의도와 관점을 달리해 해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플래닛미디어·1만5천원>



▲불량 음식-음식 상식의 오류와 맹신을 고발한다=우량 음식과 불량 음식의 논란에 해답을 주는 책. 소금, 설탕 등이 어떻게 해서 ‘건강의 적’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받았는지, 사과나 햄버거, 이스트크림의 쉐프(?)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했다. 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결정하는 우리의 태도를 파헤쳤다. <열대림·1만2천800원>



▲빈티지 걸 인 할리우드=연기자를 꿈꾸다 영화제작사에서 일하게 된 조던 로터의 자전적 성장 소설. 열여덟 살 문학소녀가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여름방학을 맞아 할리우드의 영화제작사에서 인턴으로 일 하며 소녀에서 여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그렸다. <위즈덤 하우스·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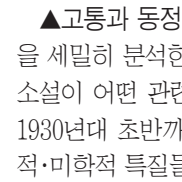
▲인간 그 속기 쉬운 동굴-미신과 속설은 어떻게 생기자=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통념과 미신을 파헤쳤다. 미신과 속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인지심리학과 사회심리학의 개념들을 활용해 명쾌하게 설명했다. <모멘트·1만1천원>



▲객소리 가득 찬 가슴=현재 중국 문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로 손꼽히는 작가 류전윈(劉震雲)의 장편소설. 자본주의 시장 개방 이후 중국 소시민들이 일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또 이들이 겪는 혼란상을 유머러스하게 풍자했다. <문학과 지성사·1만4천원>



▲양들의 낙원, 늑대 벌판 한가운데 있다=김규 전 성공회대 교수가 양들의 모습을 통해 인간들의 삶을 풍자했다. 항상 아들에게 일들이 되기를 강요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을 묘사한 ‘일등양’ 이야기 등 목직만 메시자를 던져주는 이야기가 실렸다. <나무와 숲·1만1천원>



▲고통과 동정=한국 근대 소설에서 발견한 고통과 동정의 감정을 세밀히 분석한 문학비평서. ‘동정’이라는 도덕 감정과 한국 근대 소설이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를 다뤘다. 또 191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지식인들의 답론과 소설에 나타난 다양한 이념적·미학적 특징들을 찾아냈다. <역사비평사·1만5천원>



▲인생의 나침반=일본에서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는 전종상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공체술을 소개했다. 꿈을 이루는 성공 등 자기계발뿐만 아니라 종교, 인성, 교육, 사업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성공비법을 일러준다. <햇나경·1만원>

### ‘악의 쾌락 변태에... 숨겨진 내면의 본능

‘악의 쾌락, 변태에 대하여’는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학자인 엘리자베스 루디네스코가 인간 내면에 감춰진 변태와 도착심리를 정신분석학, 문학, 철학 등을 토대로 탐구한 책이다.

중세의 신비주의 고행자부터 15세기 아동 살인마 질 드레, ‘사디즘’을 탄생시킨 18세기 작가 사드, 아우슈비츠의 살인마들, 소아성애자와 테러리스트까지 인류 역사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유형의 도착자들과 그들의 잔혹 행위를 분석했다.

저자는 도착증에 대해 “예술이나 창작, 신비주의를 지향하는 한 숭고한 것으로 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에코의 서재·1만3천500원> /이은미기자 emlee@



## 치밀한 고증으로 재구성한 인문 팩션

###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 1, 2

이덕일 지음

순천 선암사, 구례 화엄사, 부산 통도사, 범어사, 동화사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조선 숙종때 재건됐다는 점이다.

성리학이 국가 이데올로기였던 조선시대에 왜 중창불사(重創佛寺·사찰을 수리하거나 확장 재건하는 일)가 많았을까. 숙종은 승유역불 정책에서 비롯된 유교와 불교의 갈등, 치열한 당쟁으로 인해 정국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성리학 사회에 반기를 든 불교 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창불사를 했다고 한



다. ‘조선 왕 독살사건’ 등의 역사서를 주로 펴왔던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이 숙종실록 기록을 토대로 불가의 반발을 소재로 한 역사소설 ‘조선의 승려는 북벌을 꿈꿨다’(전 2권)를 냈다. 지난 2000년 ‘운부’라는 이름으로 출간했던 작품을 새롭게 구성해 개정판으로 펴냈다.

소설은 숙종실록에 실려 있는 짙막한 기록, 즉 조선 숙종 23년(1697년) 운부라는 승려와 이영창이라는 풍수사 이영창이 관군을 몰리칠 반군의 선봉장으로 당대 최강의 화적패 두목인 장길산까지 포섭하게 된다. 하지만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던 거사도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역사학자가 쓴 소설답게 풍부한 역사 평설과 정밀한 고증이 돋보인다. 또 민중 중심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실존인물들이 주축이 돼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더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포섭했던 장길산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등 사료가 부족했던 이야기들을 가공으로 재구성 하다보니 전개과정에 있어 흡인력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랜덤하우스코리아·각 권 1만1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당했던 중인 계층까지 이씨의 조선을 멸망시키고 정몽주의 후손인 정씨의 왕을 세우는 역성혁명에 동참하게 된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선을 정씨 왕조로 만들고 난 뒤 중원을 정복, 그곳에 최영 장군의 후손으로 최씨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를 위해 한양에서는 풍수사 이영창이 관군을 몰리칠 반군의 선봉장으로 당대 최강의 화적패 두목인 장길산까지 포섭하게 된다. 하지만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던 거사도 변절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기를 맞게 된다.

역사학자가 쓴 소설답게 풍부한 역사 평설과 정밀한 고증이 돋보인다. 또 민중 중심의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실존인물들이 주축이 돼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역사적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더해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힘들게 포섭했던 장길산의 활약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등 사료가 부족했던 이야기들을 가공으로 재구성 하다보니 전개과정에 있어 흡인력이 떨어지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랜덤하우스코리아·각 권 1만1천원>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 자연 愛 !! 살고싶다

### 오랜기다림의 행복!!

‘담양수북’에서 당신의 꿈을 이루세요.

- 쾌적 물리적인 시설
  - 원도, 실사, 담양지역 70~100만 소외
- 단양도 등 보석처럼 아름다운 환경
- 편리한 교통 호기여할 전원
  - 서울고속도로, 국도, 지방도로 등
- 문화적, 교육적 여건
  - 17구 24명 문화체육센터
  - 문화체육센터 20~30명, 마을카페
- 우수한 실
  - 담양수북지역 - 1000여명 주민이 사는

사형 (주) 담양수북개발  
 사금 (주) 자연주택개발  
 64201 담양-31201-1001  
 www.naturelife.com  
 대표전화 062) 251-4000 / 061) 383-2346

미래를 본래처럼 새롭게 하고 싶은

# MG건설